

# 오리, 날다!

## 축산업계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른 오리산업



변 동 주 사무관  
농림수산업부 축산경영과

최근 오리시장이 무섭게 성장하고 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교외의 가든형 식당에서나 먹을 수 있던 오리고기가 이제는 어디를 가든 쉽게 먹을 수 있고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다채널 유통망이 조성된 것이다.

오리고기는 지금 국민의 일상생활 속으로 조용히 파고들며 대중육류로 거듭나고 있다.

지난 2008년, 사상최악의 AI 발생으로 오리산업에 크나큰 타격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 발표 오리생산액이 1조 1,544억원을 기록하였다.

한국오리협회에서는 이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2010년을 “오리 생산액 2조원 달성 원년의 해”라는 큰 목표 아래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지난해부터 오리고기 소비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2010년 현재, ‘오리고기 물량이 없어 못 팔 지경’이라는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이는 국민들의 오리고기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불식

시키고 영양과 맛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킨 마케팅 전략과 다양한 소비처 개발을 위한 각 업체의 노력이 일궈낸 성과이며, 산업의 굳건한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앞으로의 발전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현재와 같이 성장한 오리산업의 뒤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의 공격, 시장개방의 압력 등 내·외적 장애물에 맞선 힘겨운 사투가 있었기에 가능했으며, 이같은 성과는 오리업계 특유의 결집력과 단합정신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 1. 오리산업의 역사

#### 1)현대 오리산업의 태동 (1960 ~ 198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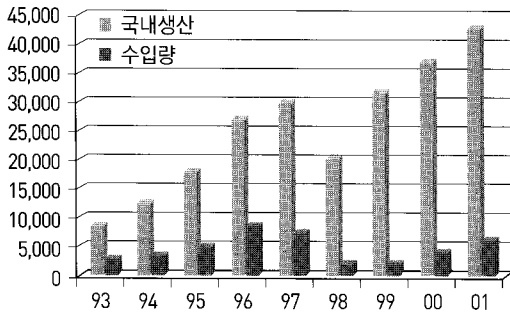


우리나라에서 오리를 먹기 시작한 것은 신라 안압지의 토기에서 오리뼈가 발굴된 것으로 미루어보아 삼국시대로 추정되며, 조선시대 명의 허준이 집필한 의서 「동의보감」에 오리의 부위별 효능이 다양하게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 오리고기는 탁월한 효능으로 인해 식용보다는 약용으로 더 많이 이용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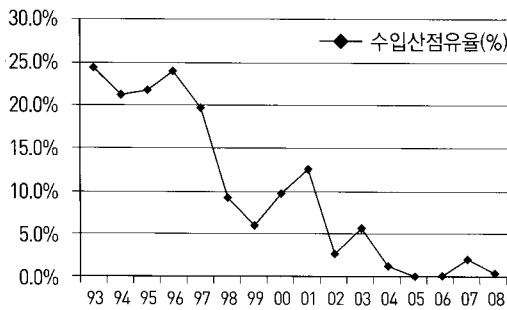
축산업으로서 식용 오리사육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중반 전남 나주지역에 처음으로 오리를 대량 사육하는 농가가 나타나면서부터이다.

당시 전남지역의 오리 사육농가를 중심으로 오리산업이 부흥하기 시작하면서 80년대에 들어 가까운 광주역 인근에는 오리탕 골목이 즐비하게 들어섰고 쫄깃한 오리고기의 육질과 고소한 들깨향, 개운하고 진한 국물맛으로 광주를 넘어 호남지역의 명물로 자리매김하였다.

## 2) 오리산업의 과도기 (1990년대)



【표 1】 오리고기 국내생산량 대비 수입량



【표 2】 수입산 오리고기의 국내 시장 점유율(%)

1990년의 오리산업은 농수산물 무역시장 개방으로 인해 방패 없는 전쟁을 치러야 하는 위기에 처했다.

1991년 농수산물 수입개방 당시 오리산업은 보호막 없이 무방비 상태로 가장 먼저 시장을 전면 개방할 수밖에 없었고 오리고기의 최대 생산국이자 소비국인 중국으로부터 값싼 저급 오리고기가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눈 뜨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결국 90년대 국내 오리시장의 10~30%를 중국, 대만 등 주요 오리생산국에 내주고 말았다. 위의 수치가 적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파급력은 100배, 1,000배 이상의 위력을 보였다.

품질이 낮은 수입산 오리고기가 국내에 유통·소비되다 보니 질긴 육질과 이취(異臭)로 인해 오리고기에 대한 인식이 급격히 추락하는 결과가 나타났으며, 이는 바로 오리고기 소비기피로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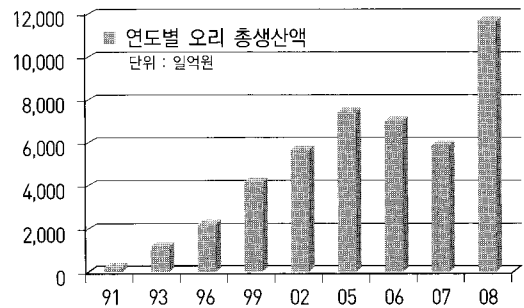
당시 국내에서 생산하는 오리고기 역시, 생산물량을

바로 소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보니 냉장육의 유통은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며 대부분 발골된 오리 완포를 롤(Roll)을 가공하여 냉동로스 형태로 유통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다보니 신선육 유통망이 잘 구축된 소, 돼지고기 등에 비해 육질이 떨어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그러나 오리고기는 보양식으로서의 장점으로 중·장년층에 꾸준한 인기를 누리 왔고 이에 힘입어 오리 사육수수가 점차 증가하며 소비량도 상승세를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 3) 오리산업의 도약기 (200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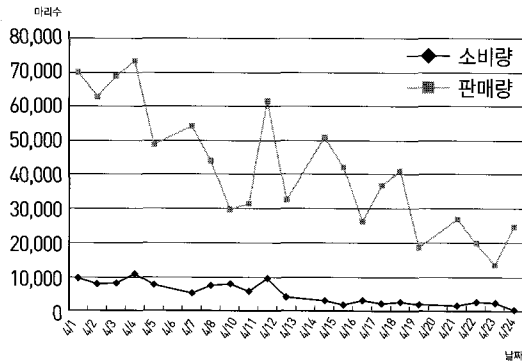
【표 3】 연도별 오리 총생산액 변화

2000년대에 이르러 오리산업은 연속적인 AI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비 온 뒤 땅이 굳는다'는 말처럼 더욱 공고한 성장을 거듭하며 산업의 도약기를 맞이하였다.

2003년 11월, 우리나라에 고병원성 AI가 최초로 발생하면서 국내 가금산업은 최대의 위기에 맞닥뜨렸다. 당시, 여과 없는 언론보도로 인해 AI를 잘 모르던 국민들은 가금육 자체를 기피하면서 소비가 한 없이 바닥으로 추락하면서, 오리업계 역시 줄줄이 부도를 맞는 등 산업 전체가 뒤흔들리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오리업계는 사업을 재편하고 위기를 발판삼아 재기에 성공하였고,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생산량과 소비량이 꾸준히 증가하며 본격적

인 성장에 돌입하였다.

그러나 AI 바이러스는 오리산업이 순탄히 발전하도록 놔두지 않았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AI가 발생하면서 번번이 산업의 성장을 떨어뜨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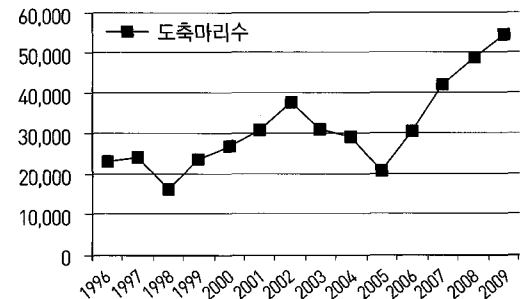
【표 4】 2008년 AI 발생 직후 판매량 및 소비량 변동 추이

오리고기 소비는 전년동기 대비 70%에서 50%로, 다시 30%까지 곤두박질쳤고 오리요리 전문점은 줄이전·폐업하는 등 회복은 더디기만 했다.

그러나 오리산업은 다시 한 번 저력을 발휘하며 AI가 발생한 지 채 1년도 안 된 기간에 2008년에 냉동창고가 모자랄 정도로 쌓였던 냉동 재고와 수매물량이 모두 소진되고도 생산량이 증가하는 기염을 토했다. 괄목할 만한 사실은 2008년 하반기부터 오리고기의 유통에 큰 변화가 오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그간 오리고기 소비가 요식업소에 80% 가량의 존했던 것에서 탈피, 군납 및 온라인 쇼핑몰과 흡소핑, 학교급식, 대형 할인마트 등 다양한 유통망과 판로를 개척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유통처가 다양해지다 보니 냉동제품의 유통에서 냉장유통 형태로 전환되어 보다 신선하고 위생적이며 품질이 좋은 오리고기가 시중에 유통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들은 90년대 당시, 냄새나 질긴 육질 등 오리고기의 고질적인 편견들이 깨어지기 시작하면서 소비량이 급증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오리고기의 시장규모 역시 급격히 커지며 산업이 비약적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오리고기 사육수수는 급격히 증가하고 소규모 사육능가는 감소한 반면, 대규모 전업농가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며 오리 사육업도 점차 전문화·규모화 되기 시작하였다.



【표 5】 오리 도축마리수

보양식에서 대중 육류로의 소비자 인식전환은 비수기와 성수기로 나뉘었던 오리산업의 소비패턴을 완전히 뒤바꾸며 연중 일정한 소비로 전환시켜 안정적 산업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는 오리업계 스스로 만들어낸 편견을 스스로 깨도록 노력한 끝에 일궈낸 성과이다.

오리고기의 이러한 소비자 인식 전환은 2000년대 들어 중국산 저급 오리고기 수입량이 크게 줄어든 것에도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중국은 잇단 AI 발생으로 2001년부터 중국산 오리고기 수출이 중단됐고 이어 2004년부터 열처리 가공품만 수출이 재개돼 국내에는 훈제제품 일부만 수입되면서 이후 국내 오리고기 자급율이 98~99%까지 증가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2010년에 들어서면서 오리고기의 소비량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나 공급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해 일부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오리고기 시세가 높게 형성돼 상대적으로 값싼 수입산 훈제오리 또는 우리와 사육환경이 전혀 다른 냉동오리제품이 언제 얼마나 들어올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다.

2000년대에는 국내 오리고기의 대일 수출이 이루어지면서 오리고기 수출산업의 포문을 열었다.

2004년과 2005년에 4~5개의 계열업체에서 국내 비수기에 인여 불량으로 일본에 가슴육, 다리육 등 부분육 수출을 진행한 바 있으나 2006년부터 국내에서의 잇단 AI 발생으로 수출길이 막혔다가 금년 4월 1일부터 대일 수출이 재개되었다.

오리업계에서는 향후 대일수출 뿐 아니라 미주, 유럽시장까지 국내 오리고기를 보급하고자 제품개발, 시장조사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 2. 대한민국 오리산업, 장기적인 성공산업으로 발전하려면?



국내 오리산업이 단기간에 빠르게 성장하다보니 커진 시장 규모에 맞는 정책적 지원이 부족하며 산업기반이나 산업 의식 수준은 아직도 미성숙 단계에 머물러 있어 이대로 몸집만 커진다면 반짝 산업으로 그칠 수 있음을 간파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오리산업이 향후 장기적인 성공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양적성장 규모에 맞는 질적 발전이 절실히 필요하다.

### 1) 육종 및 종축산업

국내 오리산업의 육종분야는 거의 미개척분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종자오리(Parent Stock)로 사용하는 품종 모두 프랑스와 영국의 오리 육종 전문업체에 비싼 로열티를 지불하고 전량 수입하기 때문에 생산비가 증가하고 국내 환경과 풍토와는 달

라 품종 자체의 생산성을 100% 끌어올리기 힘든 실정이다. 즉, 긴 시간과 거대한 자금이 소요되더라도 오리 육종분야의 독립은 장기적인 산업 발전을 위해 필수불가결하며 국내 환경에 맞는 순종오리(Pure-Line) 개발과 보급이 시급하다.

### 2) 생산시설 현대화 및 고품질 오리고기 생산

국내 오리산업이 크게 성장하는 것과는 반대로 오리 사육분야의 발달은 상당히 미미했다고 볼 수 있다. 실례로 2천수 이상 오리를 사육하는 전업농가 600여농가는 여전히 비닐하우스 등 간이축사에서 사육업을 지속하고 있다. 오리를 사육하는 축사시설이 낙후된 경우 생산성 역시 떨어지게 되므로 시설현대화 사업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최근 도입장의 HACCP인증 의무시행과 가공장의 HACCP인증사업이 한창 진행되면서 위생적이고 안전한 오리고기가 생산되고 있고 지난해부터는 오리 농장(사육단계)에도 HACCP 인증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무항생제 인증 바람도 한창이다.

### 3) 생산비 절감

지난 몇 년간 오리 생산비가 점차 증가하면서 시세가 크게 오르고 있다. 물론, 사육기술이 점차 발달하면서 사육일수 역시 상당히 줄어나갔지만 그보다 국제 곡물가 상승으로 인한 배합사료 가격 인상, 국내 쌀 소비량 감소로 인한 왕겨(축사 깔짚용) 부족 현상으로 오리 생산비의 약 70%를 차지하는 깔짚비와 사료비가 급등하고 있다. 따라서 생산비 절감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이를 위해서는 국내 고유 품종 개발, 생산 시설의 현대화, 꾸준한 연구&개발 사업이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 4)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실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와 같이 수요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한정된 생산기반으로 인해 수급 조절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국산 저급 오리고기가 대량으로 수입될 공산이 크며 더욱이 얼마나 많은 물량이 수입 될지는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아직까지 외식업소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고 있는 오리고기는 중국산 오리고기가 물밑듯이 수입돼 오리고기 전문점에서 원산지 표시 없이 판매가 된다 하더라도 법적 제재 조치를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되면 결국 90년대 수입산 오리고기가 국내 시장을 휘저으며 국내 시장을 어지럽혔던 것보다 더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될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오리고기 수입량이 아직 미미하고 수요는 증가하는 지금이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를 실시하기에 그 어느 때보다 적기라고 할 수 있다.

### 5)오리통계 및 관측사업 실시

지금까지 오리산업의 공식적인 통계는 연 1회 우리 부에서 발표하는 기타 가축 통계가 전부이다.

그러다보니 산업의 기본적인 현황 파악이 어려워지면서 생산비, 사육비, 수익성 등 경영비조차 객관적으로 산출할 수 없어 경영개선 방안을 모색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AI 등 악성전염병 또는 자연재해 등 피해발생 시 대책 수립에도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하루 빨리 타 축종과 같이 체계적이고 주기적인 정부(통계청) 통계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 정확한 수급예측과 그에 따른 정책 수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6)연구개발(R&D) 사업의 활성화

네덜란드, 호주 등 전통적인 농업선진국의 경우 갈수록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과학적 농업을 추구하는 경향이 짙다.

국내 오리산업은 그 동안 연구개발 사업이 체계적으로 진행된 바 없어 기본적인 연구자료와 학문적 기초

가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이것은 오리산업의 체계적 발전을 더디게 하는 원인 중 하나로서 축산업 역시 철저한 기록과 연구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든 시대인 만큼 연구개발 사업 활성화를 통한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 7)오리고기 수출 확대

2000년대에 들어서 오리산업은 대일수출로 수출길을 열고 야심차게 해외시장 진출을 꿈꿔 왔지만 번번이 국내 AI(저병원성, 고병원성)발생으로 그 길이 막혀 몇 번이고 그 꿈을 접어야 했다.

오리고기의 수출로 시장을 키우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시해야 할 것이 바로 AI 등 악성 전염병 및 질병 발생을 막아 청정국을 유지하는 것이다.

또한 중국 등 낮은 가격과 막대한 물량으로 수출시장을 공략하는 국가들과 차별화될 수 있도록 브랜드·고품질 오리육 생산, 독창적 마케팅 전략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3. 맺는 말

최근에는 오리고기의 불포화지방산과 특유의 해독 능력으로 현대인들의 가장 큰 적인 성인병과 공해독에 탁월하다는 인식이 소비자들에게 크게 어필하는 한편, 생산기술 향상과 냉장유통 시설 발달로 육질 고급화를 이루어내면서 '맛과 영양'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았다.

허나,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오리업계에 산재되어 있는 과제들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지금의 성공은 모래성처럼 바람과 같이 사라져 버릴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오리고기는 점점 국민의 생활 속으로 깊게 자리하고 있는 만큼 오리산업은 이 기회를 십분 활용해 대중육류로서 확고히 자리매김하리라 믿는다.